

성명	남철우	수험기간	2019.08.~2024.07.
학교	경희대학교	전공	전자공학과
키워드	2번의_소수점_탈 특하고득점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1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남철우입니다. 편의상 때론 정답이 있는 것처럼 설명 드리겠지만, 아시다시피 합격자 200명마다 공부법이 다른 만큼 참고만 하시고 올바르게 적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공부 - 홀수차

점수 85.83점 [커트-80.83점]

【총론】

진입했을 때를 포함하여 총 3번의 1차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첫 1차 시험의 공부법에 관하여는 다른 합격자분들이 자세히 써주신 내용이 있어서 삼시의 1차 공부법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각 과목을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의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민법을 효율적으로 마쳐서 산업재산권법을, 산업재산권법에서 시간을 아껴서 자연과학을, 자연과학에서 시간을 아껴서 다시 법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

☑ 강의 수강 (김동진 중급강의)

많은 분들이 기득 때 2차 시험을 떨어지면 **민법 중급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급 강의를 수강하면 생각보다 '들으면 아는 내용'이 꽤 많고,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은 '들으면 아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 해당 부분의 문제와 답을 눈으로 확인하고 막히는 부분은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며 막히는 부분을 따로 책에 표시하면서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의미가 있나 싶고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중급강의의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판례 강의 역시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처음에 2배속 이상으로 빠르게 수강하였으며, 혼자 다시 공부한 후 지식과 중요한 키워드가 조금 **변질(?)되었을 때 다시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잘못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시험 일주일 전 X 표시 후 시험 날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 역시 김동진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였고, 시험 전 날까지 자료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최신 판례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시험 일주일 전 X 표시 후 시험 날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 문제 풀이시(김동진 민법공방연습)

1차 시험까지 대략 세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민법부터 자연과학까지 모든 과목을 세 달안에 다시 공부해야 함을 고려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반면, 지금 아는 것을 시험 직전까지 보지 않는다면 까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처음 문제 풀이시 맞힌 문제를 언제 다시 보고 언제 마지막으로 볼 것 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급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만, 자연과학과 병행하면서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는다면,

중급강의 수강이 완료된 후에 문제풀이를 시작해도 됩니다.

- **1회독**시 순서대로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는 김동진 민법 공방 연습의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 **2회독**의 경우 틀린 문제만 풀었습니다. 아는 문제를 다시 풀어도 시험 직전까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 **3회독**시, 1회독때 틀린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즉, 2회독시에 맞추었더라도 다시 풀었습니다.
- **3회독을 마친 후** 처음에 맞힌 문제와 답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답을 맞힌 문제에 대한 회독을 과감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점점 맞힌 문제가 늘어나고 틀린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시험 전 날에는 민법에 3시간 정도를 투자했으며, 최신 판례 회독 후 남은 시간에 회독이 늘어나도 계속 틀린 문제를 위주로 눈에 발랐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시험 전 날에 보지 않아도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는 과감하게 X 표시 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 기본서

문제풀이만으로도 정오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거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기 위해 한 번 읽은 것을 제외하면 따로 정독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산권법】

❑ 특허법

특허법은 곧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갔습니다. 기출 이외의 모의고사를 2회분 풀었습니다. 기득을 지나오신 만큼 판례의 정오를 가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만, 조문의 정오는 아시는 것처럼 치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따로 조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조문 문제가 치사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조문강의를 수강하시거나 조문 공부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눈으로 반드시 어떻게 치사하게 나왔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는 발체용으로 구매하여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전 날까지 틀린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고, 조문을 한 번 읽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풀이에는 홍기석 강사님의 객관식 문제집을 선택했다가 양이 많아서 모의고사 교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조문 문제가 몰려 있는 파트(예를 들어, 재정, 실시권 등)는 객관식 문제집을 골라서 풀었습니다.

❑ 상표법

상표법은 기출 문제집 중 해설이 가장 자세한 책을 골라서 풀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1차를 공부할 때는 박영룡 변리사님의 기출 문제집이 해설이 가장 자세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기출 문제집을 선택했습니다. 해설이 자세한 기출 문제집은 기본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표법 역시 문제풀이→조문 순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허법과 달리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학습 시기를 뒤로 미루어 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은 미리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1차 시험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 과목(예를 들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생물, 지구과학)을 뒤로 미루어 두는 경우 상대적으로 공부 양이 많은 과목(예를 들어, 민법, 특허법, 물리, 화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법은 상표법과 달리 뒤로 미루어 두어도 무방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해야 하는 절대양이 적으며 기출과 유사하게 그리고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 모의고사 자료 중 종종 디자인보호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 모의고사와 기출간의 간극이 가장 큰 과목이 디자인보호법이라고 생각하며, 모의고사에서 디자인보호법을 많이 틀렸다고 디자인보호법의 공부량을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학개론】

법 과목에서 시간을 아껴서 물리, 화학에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아 효율적인 공부를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합격자 분의 합격 수기(예를 들어, 60기 우정희 변리사님의 합격수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과목 중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생물은 미리 공부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생물이 뒤로 밀릴수록 중요한 과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은 박준희 강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를 한 번 수강한 후 기본서를 반복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모르는 지구과학 문제(대멸종)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10개 맞혀야 붙는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했고 결과적으로 답도 틀렸습니다. 지구과학은 10개를 목표로 공부하시되 **시험장에서는 8-9개를 맞힌다는 마인드**로 문제를 푸시고 모르는 문제는 남겨두고 찍으시길 바랍니다.

2차 공부

점수 민소-60.66점, 특허-51.66점, 상표-57.33점, 디보-71.33점

【총론】

사정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동차 시절, 불합격이 납득되었던 기득, 그리고 두 번의 소수점 탈락을 거쳐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두 번째 소수점 탈락을 맞이한 사시가 아닌 삼시 탈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61회 합격자 발표가 나온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은 커트라인과 점수 차이가 꽤 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소수점 탈락자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두 번의 소수점 탈락을 극복하게 된 과정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

☑ 민사소송법

1차 시험을 보고 난 후 민사소송법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 심화강의: 2배속 이상으로 최대한 빨리 수강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 기본서 공부방법: 통합 민사소송법만을 기본서로 보았습니다. 기본서를 볼 때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닌 눈으로 읽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한경훈 변리사님의 조언에 따라 키워드에 밑줄을 치면서 1회독을 했고, 이후에는 불투명한 펜으로 키워드가 눈에 안보이게 지운 후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회독이 늘어날수록 더욱 많은 키워드를 지워나갔습니다. PDF로 기본서를 보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펜을 지우면 다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물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운 키워드를 교재 밑 또는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부법의 장점은 책을 눈으로만 읽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 통합 사례집: 스터디를 통해 사례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출 사례집은 따로 보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창한 강사님이 찍어 주신 문제만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회독을 많이 돌린 이후여서 직접 풀지 않고 쟁점과 목차만 가볍게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창한 강사님의 경우, GS 보충 강의를 시험 임박했을 때까지 계속 올려주시는데 이를 모르고 시험 막바지 계획을 짜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획을 짜실 때 꼭 GS 보충강의를 고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4월: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A를 수강하였습니다.
- 5월: 이후 바로 통합 사례집 풀이 스터디(5월)를 했습니다. 스터디는 대략 20~30 페이지 정도 보고 모르는 파트를 서로 물어보았고 바로 다시 다음 문제를 풀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때도 토론을 하는등 시간 낭비하지 않았고 제한된 시간안에

정해진 분량을 푸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솔직히 한 두 번은 이야기가 길어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일에 하루에 100페이지 가량 볼 수 있었고 5월 한달간(8회) 1회독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을 때 최대한 같이 풀고 채우지 못한 분량은 월요일에 보충했습니다.

- 6월: 이창한 강사님의 실전B를 수강했습니다.

- 기타 자료와 강의: 객준형 변리사님의 GS를 풀었지만, 이창한 강사님의 자료와 중복되는 쟁점은 아예 지우고 풀지 않았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GS 문제 또한 이창한 강사님과 서술 방법이 다른 경우, 고민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또한, 김재진 변리사님의 최종정리 강의를 수강하였지만 이는,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통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하여 수강하였습니다.

☑ 특허법

수차례 2차 시험을 치루면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특허법만 공부하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기본서/사례집: 기본서와 사례집은 홍기석 강사님의 해례를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공부를 오래 한만큼 정밀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 판례가 많았고 판례가 수정되어 있거나 요약되어 있거나 또는 판례/검토로 분리되어 있는 교재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GS/강의: 박형준 변리사님의 실전 A, B 및 판례 강의와 탭텐 판례 강의, 최종정리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최종정리 강의 이후에는 기초 플러스 자료를 시간을 정해 매일 꾸준히 보았습니다. 메인 교재를 홍기석 강사님을 선택했지만 박형준 변리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은 ‘남들이 아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는 자신감이 시험장에서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홍기석 강사님으로부터 판례 현출의 중요성과 기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배울 수 있었다면, 박형준 변리사님으로부터 러프한 문제에 대처하는 즉, 시험장에서 필요한 순발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초 플러스 자료는 기본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박형준 변리사님의 판례 강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형 GS: 문현돈 변리사님의 실전 GS를 수강하였습니다. 이유는 청사를 꼼꼼히 봐주신다는 점도 있지만, 홍기석 강사님과 결이 비슷한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끝까지 어려워하는 파트 중 하나가 ‘기능식 청구항’ 부분입니다. 문현돈 변리사님을 통해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해례 사례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례 사례 스터디의 장점은 물론 강제성도 있지만 남이 쓴 답안지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홍기석 강사님이 시험 막바지에 올려주신 추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로도 그대로 출제(제 61회 2번 문제)되었습니다.

☑ 상표법

60회 변리사 시험에서 고득점(58점)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서: 6월 이전에는 기본서를 거의 보지 않았고, 사례집과 GS, 판례집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6월부터 기본서 회독을 시작했습니다.

사례집: GS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였고 이번 시험에서도 나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경훈 변리사님이 가르쳐주신 사례집 풀이방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최대한 짧은 시간**안에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입니다. 아래 원문의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사례집은 회독을 할 필요는 없고, 다음주에 GS가 없으니, 그 주를 활용하셔서 5일에서 7일 정도 전체 문제의 목차잡기를 몰아쳐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꾸준히 목차잡기를 하는 것보다 몰아쳐서 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의 문제들을 연속으로 풀면서 어떤 사실관계가 변화했을 때 답안이 어떻게 바뀌는지, 배점이 얼마나 변화했을 때 어떤 쟁점들이 빠지고 축약되거나 길어지는지 등을

체감할 수 있어서, 문제풀이의 "생생한 느낌"을 느끼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딱 한번만 목차잡기를 해보셔도 사례풀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례집 풀이도 한번 해보시고, 이후에 어떤 느낌이신지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회차도 파이팅입니다 철우님!!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보호법은 ① 미리 ② 하루에 조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TIP만 전달드리겠습니다.

판례 유사/비유사 외우는 방법: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례의 결론과 다르게 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하다는 점, 만약 결론이 다르게 출제된다면 유사/비유사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쉬운 문제일 것이라는 점(즉, 틀리는 사람이 없음), 대다수의 수험생과 결론이 다르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우리는 반드시 판례의 결론을 외워야 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례집을 보실 때 결론이 유사인 판례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체에 **파란색**, 결론이 비유사인 판례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체에 **빨간색**을 최대한 **공격적으로(?)** 색칠하시면 정말 결론은 까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 방법은 긴장된 상태에서 결론이 헛갈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사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터디 활용

☑ 총론

스터디는 이기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스터디가 본질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 스터디라면 친한 친구(또는 스터디원)의 제안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터디의 필요성은 자신의 정신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캠 스터디

아직있는 시간에 대한 강제성 부여를 목적으로 평일에는 교시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평일 중 하루는 휴무를 쓰고 쉬거나 카페에 나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GS 시즌에는 월요일에 복습을 해야 하므로 수요일쯤 하루 휴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까지 공부하고 비로소 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50분 공부/10분 휴식하는 방식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방장님이 다소 엄격(?)하게 잘 운영해주셔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 답안지 스터디

이번 합격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스터디 중 하나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은 단점은 암기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꾸준히 피드백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암기가 과해지기도 하고, 부족해지기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원들과 같은 GS를 한 세트 풀면서 답안지를 돌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지나치게 외우는 것에 치중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스터디원보다 유난히 잘 못 외우는 파트가 있는지를 스스로 피드백 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답안지를 돌려 볼 때 중요한 것은 스터디원의 답안지를 빠르게 보면서 피드백 하는 것입니다. 정독하지 않고 빠르게 보면서 인상이 좋은 답안지의 장점을 흡수하고, 반대로, 스터디원이 내 답안지를 빠르게 보면서 장, 단점을 발견해줌으로써 실제 시험에서 인상이 좋은 답안지란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나갔습니다.

❑ 과목별 암기 스터디

스터디원과 아침 공부 시작 전 민사소송법, 점심식사 후 특허법에 대한 전화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GS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서 진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1/8 또는 1/10 정도의 분량을 매일 암기하면서 진도에 대한 강제성과 지식을 출력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화 암기는 시험 일주일 전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2차 시험을 준비하기

❑ 멘토링

2차 시험이 속해 있는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아가 그 전 달에는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한 경훈 변리사님을 통해 정승우 변리사님의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차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 및 시험장에 서의 마인드 세팅 등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시험 한 달 전-민사소송법 1회독 도전하기

‘과연 시험 전 날, 통합을 다 읽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6월의 8번째 GS가 있는 날을 실제 민사소송법 시험 날짜라고 생각하고 그 전 날인 토요일에 민사소송법 1회독에 도전했습니다. 시험 한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읽다보니 통합을 절반도 못 읽었습니다. 회독을 늘리더라도 시험 전 날 1회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1회독은 포기하고 시험 전 주에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험 전 날에는 이창한 강사님의 GS 중 틀린 문제를 위주로 모두 보고 들어갔습니다. 책을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시라면 6월 마지막날에 꼭 1회독을 도전해보시고 실제 시험 날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누구나 ‘자신감’이라고 말합니다. 아는 문제에서 힘을 뺄 수 있는 자신감, 모르는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성실하게 보낸 시간’으로부터 나옵니다. 멘토링 과정에서 정승우 변리사님이 “시험장에서 다른 것은 믿지 말고, 본인이 지나온 시간만 믿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1교시 특허법 시간에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인데놀을 미리 처방받아 시험 시작 전 복용했습니다. 기본서를 가방에 넣고 대기하는 동안에는 같은 교실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합격자는 누가 될지 주위를 둘러보면서 한 줄에 한 명 정도 마음속으로 합격시켜주면서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마치며

수험 기간 동안 항상 응원해준 사랑하는 가족들, 수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 전 날까지 함께 해준 예진이, 작년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우석님, 특허고물 지은님, 공부시간 확보를 도와주신 캠 스터디 방장 리사님, 수험 생활 뿐만 아니라 합격 후 회사 선택까지 도와주신 한경훈 변리사님, 특허법 길을 밝혀주신 홍기석 강사님, 시험 전 날까지도 질문 받아주신 문현돈 변리사님 그리고 사랑 아니 좋아하는 내 친구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갇아가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끝으로, 62기 변리사님들의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ncy8896@naver.com)